한·중 우호교류… 나주영산강축제서 빛났다

절강성 태주시 공연단 방문…중국 전통문화예술 시연
윤병태 시장 "문화예술 넘어 산업·관광 등 교류 확산"

나주영산강축제가 한·중 우호교류의 장으로 빛나며 축제의 국제적 위상을 키웠다.

14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25 나주영산강축제' 마지막 날 국제 우호교류도시인 중국 절강성 태주시 문화예술공연단을 초청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대표단은 태주시문화방송관광체육국 부국장을 비롯해 태주시민악단, 태주난탄극단 등 공연단원과 관계자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주무대에서 열린 '국제 우호교류도시 초청공연'에는 태주시민악단과 태주난탄극단 등 20여명의 예술인이 참여해 중국 전통악기 연주와 민속무용, 난탄 등 풍성한 무대를 선보였다.

관객들은 색다른 문화예술을 즐기며 중국 전통예술의 매력을 가까이서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태주시 공연단은 축제장 주무대에서 열린 '세계문화공연'에도 참가해 중국 전통예술의 멋을 선보이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 태주시 대표단은 공연에 앞서 천연염색문화관, 국립나주박물관, 우주드림센터 등 주요 문화·관광시설을 방문해 나주의 역사와 문화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일정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양 도시는 상호 이해를 넓히고 향후 실질적인 문화·관광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나주시는 최근 열린 '2025 나주영산강축제' 마지막 날 국제 우호교류도시인 중국 절강성 태주시 문화예술공연단을 초청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나주시는 이번 교류가 양 도시 간 문화적 유대와 상호 이해를 한층 강화하고 이번 나주영산강축제를 단순한 지역축제가 아닌 국제 문화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방문이 양 도시 간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며 문화예술을 넘어 산업·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2026년에는 양 도시의 우정이 한 단계 더 깊어져 자매도시로 이어지는 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5 나주영산강축제'는 지난 8~12일 영산강정원 일원에서 '영산강의 새로운 이야기, 지금 다시 시작 시즌 2'를 주제로 펼쳐졌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영광, 17일까지 참여 농가 모집

영광군은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오는 17일까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농번기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 내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신청할 수 있다. 군은 법무부 배정심사, 비자발급인정서 신청 등을 거쳐 2026년 상반기부터 계절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다.

계절근로 체류자격(E-8)으로 입국한 근로자는 최대 8개월 이내의 체류기간 내에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 배치 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최저임금 준수와 적정한 주거환경 제공, 근로시간·휴게시간 보장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군은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수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또 재입국 계절근로자 출국 항공료 지원, 계절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당해 사업량 소진 시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gp98@gwangnam.co.kr

담양, '인천공항행 고속버스' 첫 운행
군민 교통편의 증진… 직행 노선 신설

담양군은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직행 고속버스 노선을 15일부터 운행한다.

이번 노선은 금호고속이 신설한 프리미엄 고속버스로, 담양공용버스터미널을 출발해 고창과 정읍을 거쳐 인천공항 제1·제2터미널까지 직행한다.

상행편은 담양터미널에서 오전(심야) 1시 40분에 출발해 인천공항 제1터미널 오전 5시 50분, 제2터미널 오전 6시 15분에 도착한다.

하행편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 오전 10시 25분, 제1터미널 오전 10시 50분에 출발해 담양터미널에 오후 2시 45분 도착하며, 운임은 심야 6만8900원, 주중 5만9200원이다.

예매는 '티머니GO' 앱을 통해 상·하행 모두 가능하며, 상행편은 '코버스 홈페이지'와 '고속버스티머니' 앱에서도 예매할 수 있다.

정철원 군수는 "이번 노선 개통으로 군민들이 더 편리하게 해외여행과 출장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양=조성웅 기자 jnwnews@

담양군은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직행 고속버스 노선을 운행한다.

베트남·캄보디아 소비자가 반한 '함평 샤인머스캣'
함평꽃무릇수출포도영농조합, 내년 2월까지 320kg 매주 수출

함평군이 지역 대표 농특산물인 샤인머스캣 수출을 본격화하며 국제시장 공략에 나섰다.

14일 함평군에 따르면 전날 해보면 함평꽃무릇수출포도영농조합법인(대표 김용오) 농장에서 샤인머스캣 수출 상차식을 열고 베트남과 캄보디아로 수출을 시작했다.

이번 수출은 지난달 22일 베트남 DHI그룹(대표 안효선)이 해당 농장을 방문해 품질을 확인한 뒤 체결된 계약의 후속 조치로, 2026년 2월까지 매주 320kg씩 차례대로 수출할 예정이다.

수출하는 샤인머스캣은 평균 당도 17브릭스(Brix) 이상의 포도로, 해외 고급 소비자층을 겨냥한 프리미엄 제품이다.

군은 이번 수출을 계기로 고급 소비층을 대상으로 한 시장 공략과 일반 소비시장 확대를 병행하는 '이원화(2-Track)'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함평 샤인머스캣의 고급화와 대중화를 동시에 실현하고, 동남아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성과는 군이 꾸준히 추진해 온 해외 식품박람회 참가의 결실이기도 하다. 군은 올해 베트남 현지 식품박람회에 참가해 바이어 미팅과 시음용 표본을 제공해 신뢰를 쌓았으며, 이러한 노력이 이번 수출 계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상익 군수는 "이번 수출은 꾸준한 품질 관리와 함께 지속적으로 해외 박람회에 참가하며 해외 소비자들과 신뢰를 구축한 노력의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함평 농산물이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

카드형 장성사랑상품권 할인·구매 한도 상향
올해 15% 할인·월 200만원

장성군은 올해 말까지 카드형 장성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5%로 상향 조정한다.

카드형 장성사랑상품권 충전 시 10% 할인, 결제 후 5% '캐시백' 적립이 적용돼 총 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립금은 지역사랑상품권 휴대전화 앱 '착(chak)'에서 '캐시백' 기능을 활성화해 두면 다음번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된다.

상품권 구매 한도도 월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단, 종이형 상품권은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10% 할인, 월 70만원 한도를 유지한다.

김한종 군수는 "일부 면 소재지 하나로마트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했다"며 "지역 상권 활력 제고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화순, 요실금 치료 지원
60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

화순군은 지역 내 60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신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요로계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정확한 진단·치료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검사비와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본인 부담 의료비를 연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다만 요실금 진단 후 치료를 받아야 하며,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수급자나 실손보험 수령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희망자는 요실금 관련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해 보건소에 신청·접수해야 한다. 이후 치료를 받은 뒤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등의 서류를 갖춰 보건소에 치료비를 청구하면 된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